

화순 봄꽃 축제 개막... 낮과 밤 잇는 '체류형 관광' 선배

오는 26일까지 꽃강길 일원
2.1km 유채꽃·5개 테마정원
남산공원 야간경관 체류 유도
고인돌 야시장 등 상권 활력

화순군은 낮의 화려한 봄꽃 관람과 밤의 특화된 야간 경관을 결합한 대규모 축제를 가동하며, 단순 관람을 넘어 체류형 관광 모델로의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화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축하쇼(공정식 가요제)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0일간 화순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2026 화순 봄꽃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봄꽃 야행(夜行)'을 핵심 주제로

삼아 주야간을 아우르는 복합형 관광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축제의 주 무대인 화순 꽃강길 일원에는 약 2.1km 구간에 걸쳐 대규모 유채꽃 단지과 다채로운 봄꽃 산책로가 조성됐다.

특히 플로라가든, 봄꽃정원, 생태정원, 어린이 정원, 웰컴가든 등 기하학적 형태와 자연 친화적 요소를 결합한 5개 특화 테마정원이 현장에 꾸려져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희귀 야생화와 다육식물 특화 전시를 병행해 생태적 체험의 질을 높였다.

도심 속 핵심 휴식처인 남산공원 일대는 야간 체류를 유도하는 특화 거점으로 번모해 공원 전역을 거대한 야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첨단 조명 기술을 접목한 다채로운 야간 경관 연출을 통해 상춘객들에게 이색적인 봄밤의 정취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봄꽃 야행(夜行)'을 주제로 한 '2026 화순 봄꽃 축제'가 오는 26일까지 개최된다. 사진은 축제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화순군 제공)

생활 밀착형 연계 프로그램을 가동해 축제장 내에는 향토 음식 중심의 '베jay포차'와 지역 대

표 먹거리인 탄광 아이스크림, 국화빵 등을 선보이는 먹거리 구역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인근 고인돌 전통시장 야시장을 별도 개장해 관광객의 발걸음을 도심 상권으로 이끌며,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다문화 모국춤 페스티벌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군은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해 현장에 종합상황실과 이동진료소를 구축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며, 우모차와 휠체어 대여, 수유실 운영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편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조형체 관광체육실장은 "꽃강길과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주야간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입체적인 관광 콘텐츠를 구축했다"며 "다양한 문화 공연과 먹거리,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화순이 남도를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남은 기간 현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고흥 남부권 해역 청정어장으로 재탄생한다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50억 확보
도양·금산·포두 등 1천500ha 정화

고흥군은 양식으로 오염되고 노후화된 남부권 해역의 어장 환경을 복원 하는 대규모 해양정화 사업을 실시한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청정어장 재생사업' 공모에 고흥 남부권 해역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도양, 금산, 포두, 동일, 봉래 등 남부권 해역 약 1천500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확보한 50억원을 집중 투입해 양식 어장 바닥에 장기간 침적된 폐기물과 오염 퇴적물을 대대적으로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해당 해역은 참돔, 새꼬막 등 주요 패류와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이 활발한 수산업 핵심 요충지다.

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진 생산 활동 탓에 어장 과밀화와 해저 환경 노후화가 겹치며 생산성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바다 밑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군은 앞서 2021년과 2022년에도 특량만 및 여수산 해역 공모에 선정돼 2024년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 3천300ha 규모의 어장 개선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선정으로 고흥 전 해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양정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노후 어장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켜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장흥군 특산품 '흥화표고' 도시 소비자 공략

외래종 맞서 국산 경쟁력 제고

장흥군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흥화표고'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직접 선보이며 국산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를 다각화하는 데 주력한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전남 롯데아울렛 남악점 야외판매장에서 '장흥 흥화표고 홍보·판매 기획전'을 성황리에 개최

했다. 이번 행사는 서남권 소포 중심지에서 도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외래종에 의존해온 국내 표고 시장에서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맛과 향이 뛰어난 고품질 흥화표고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소포객들의 발길을 붙잡았으며, 장흥군버섯연구원과 협업해 국산 흥화표고의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홍보

부스를 운영, 시중 점유율 90%를 상회하는 외래 품종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장흥표고버섯스마트화 기반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흥화표고의 보급 확대를 지원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 중인 흥화표고의 경쟁력을 현장에서 검증받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기술 보급을 통해 흥화표고를 장흥의 핵심 소득 작목으로 확고히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 유람 마린 호텔&리조트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18명을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여수시 제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명예홍보대사 위촉

방송인 윤택·원기준 등 18명 임명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견인할 명예홍보대사가 위촉되면서 본격적인 홍보전의 막이 올랐다.

1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여수 유람 마린 호텔&리조트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총 18명을 신규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명단에는 방송인 윤택, 배우 원기준과 민도희, 유튜버 이수연, 채코제, 조리 명장 안유성, 카피라이터 정철, 트로트 가수 김다현, 외국인 방송인 크리스 존슨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이들은 향후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기획에 참여해 박람회의 매력을 알리는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이번 위촉식 현장에서는 홍보대사들이 각자

의 조각을 맞춰 큰 그림을 완성하는 대형 퍼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수많은 섬이 지닌 가치를 하나로 모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간다는 박람회의 핵심 상징성을 부각했다.

박수관 조직위원장은 "홍보대사들의 선한 영향력과 진정성이 박람회 성공 개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여수 일원에서 30여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치러진다. /여수=김진석 기자

보성군, 내달 1일 학생차예절경연대회 개최

24일까지 전국 초·중·고 모집

보성군은 19일 "전통 차 문화 계승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예절 함양을 위해 전국 단위의 차예절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개막일인 오는 5월1일 오전 9시30분 한국차문화공원 주무대에서 '2026학생차예절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문 심사위원단이 한복 착용 상태를 비롯해 다구를 다루는 태도, 절하는 예절, 차를 내는 과

정의 조화 및 숙련도 등 차 예절 전반을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최고상인 금상 수상자에게는 전남도교육감과 함께 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참가 희망자는 마감일인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보성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해 이메일이나 등기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상군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장은 "전국 청소년들이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전통 예절의 가치를 깊이 있게 배우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실전형 시책 발굴

프로토타입 기법 전면 도입

광양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형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전형 정책 연구 모임을 가동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락호텔에서 시공직자 50명으로 구성된 '2026년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발대식 및 워크숍을 열고 신규 정책 발굴 체제에 돌입했다.

실·국별 10개 팀으로 꾸려진 정책디자인단은 복지, 경제, 일자리, 관광 등 시정 전반에 걸친 핵심 과제를 다룬다.

특히 올해는 발굴된 아이디어를 시행 전 소규모 사전 적용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프로토타입(Prototyping)' 기법을 전면 도

입해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역 정책 환경 분석과 사업계획서 실전형 작성 교육이 이뤄졌으며, 디자인단은 향후 선진지 견학과 전문가 코칭을 거쳐 오는 6월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팀별 연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채택된 우수 시책은 2027년도 신규 시책으로 공식 반영되며, 우수 팀에는 포상금과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정책 기획 역량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이라며 "프로토타입 과정을 거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군, 농업인 농기계 사고 예방 '총력'

맞춤형 실습 안전교육 강화

담양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임대전밀착형 실습교육을 강화한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농가를 대상으로 기계 출고 전 조작 방법과 필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사고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위해 트랙터와 관리기 등 주요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과 응급 대처 요령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는 체험형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임대사업소 직원들을 대

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비상시 대처 방안을 점검하는 내부 안전교육도 별도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군은 올해 노후 기종 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 수요 조사를 거쳐 신규 농기계 12종, 총 22대를 추가로 도입해 원활한 임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나빈아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사전 교육과 기본 수칙 준수만으로도 대형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장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기계 임대 사업은 지난해 기준 5천 900여대가 7천200대를 이용하는 등 현장의 든든한 영농 버팀목이 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